



## “2014년 4월16일...그날의 기억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전남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물결

5·18민주광장 분향소 우천에도 하루 종일 추모객 발길  
천주교정평위 목포서 미사...오늘 진도해역 선상추모식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남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졌다. ▶관련기사 3·6·14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비가 내리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소한 시민 분향소의 문을 잠시 닫고 있었다. 분향소 앞 현화대와 노란 리본 모양의 조형물 등이 천막 안으로 옮겨진 뒤 바깥에는 사망자 289명과 미수습자 5명의 영정만 남았다.

영정 속에서 외롭게 비바람을 맞던 희생자 301명의 넋을 위로한 건 곳은 날씨에 도이들을 추모하러 온 시민들이었다.

이날 오후 12시30분까지 분향소가 문을 닫은 동안 이곳을 찾은 4명의 시민들은 영정 앞에서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빗줄기가 얹아지면서 다시 문을 연 분향소엔 오후 1시부터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갈 길을 가던 중에도 먼저 온 추모객들이 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추모에 동참한 시민들도 많았다.

단체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다. 광주 광산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온 8명 중 일부는 국화를 집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 모두 현화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했다.

개인 추모객 이승남(63)씨는 “매년 4월이 되면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아픈데,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남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매년 분향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산정동 성당에선 이날 오후 2시 한 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세월호참사10주기추모미사를 봉헌했다.



김선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의 주례로 열린 추모미사에는 문창우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장장과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등이 참여했다. 주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1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문창우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그 근본 쇠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끝낼 수도 없고, 끝내지도 안된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추모음악회를 연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달을 ‘세월호 교육주간’으로 운영한다.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추모 현수막 게시, 노란 리본 달기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 16일 교육청에서 세월호 추모행사를 열며, 일선 학교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세월호 관련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한편, 4·16재단은 16일 오전 10시30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의 주관으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김다이·안재영·장은정 기자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마을연합회 주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북구청 광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노란 바람개비와 리본이 설치돼 있다. /김애리 기자

### “팽목항 ‘4·16 기억공간’ 조성 부지 제공”

진도군, 세월호단체 요구 일부 수용

진도군은 15일 “세월호 참사(2014년) 당시 희생자 시신이 수습돼 처음 옮겨졌던 팽목항에 ‘4·16기억공간’ 조성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임시 분향소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도 연대 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가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내놓은 상생방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연대는 지난 2월28일 오후 진도군을 찾아 진도항에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진도군은 시민단체 요구에 상생 차원에서 부지 제공 등의 검토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기억공간의 경우 공공사업 잔여지를 확보해 제공기로 했으며, 팽목 4·16공원 기립비도 최소 면적으로 바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팽목 4·16 공원은 진도항 방파제 상부 공간을 활용해 길이 200m, 폭 8m를 제공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상생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할 뿐이며 부지 제공 외에 별도 예산 지원은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은 전남도가 약

속했고, 국무조정실도 추모 공간의 위치·규모 등을 담은 협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제주-진도 여객선항로 건설 공사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팽목항 주차장 터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팽목항에서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남동리에 국비로 조성되는 국민해양안전관에 세월호 추모 기록 공간이 포함된다. 진도 기억 공간 추가 조성을 반대한 이유로 제시됐다. /진도=박세권 기자

### “신속 추진 필요...용역때 지역 의견 개선 기회 줄것”

김지사, ‘공모 방식 의대 설립’ 관련 목포권 의견 수렴

오늘 도의회·18일엔 순천시 ‘릴레이 회동’ 결과 주목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모 방식으로 전남권 의대 설립 단일대학 결정을 위한 용역 진행 시 지역의 의견을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김영록 지사는 15일 오후 도청 정약용

실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자복 목포시의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기존 ‘통합의대’에서 공모 방식을 통한 ‘단일의대’로 변경한 배경과 과

정을 설명하고, 공모 방식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개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상황이 유동성이 있는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목포대 총장·목포시장·목포시의회의장께서 지역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제시해 줬는데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이런 지역 의견을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목포권을 시작으로, 16일 도의회 의장단, 18일엔 이병은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장병희 순천시의회의 의장과 ‘릴레이 회동’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 Today

尹, 오늘 총선 입장 직접 밝힌다 4면  
우학소...동강대 ‘외식조리제빵’ 9면  
KIA, SSG·NC와 6연전 ‘선두경쟁’ 16면

#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주최·주관  
교육부

후원  
여수시